

오제 국립공원

명산에 둘러싸여 꽃이 만발하는
일본 최대의 산악 습지



오제 국립공원의 역사는 오래되어 1934년에 닛코 국립공원의 일부로 지정되었지만, 2007년에 닛코 국립공원에서 오제 지역으로 분할하여 아이즈코마가타케산, 다시로산, 다이사쿠산 등 주변 지역을 편입하여 29번째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제라는 이름은 국민적 애창가 '나쓰노오모이테(여름의 추억)'로도 널리 알려져 본토 최대의 고층 습원인 오제가하라, 분화에 의해

다다미강의 원류부가 막혀서 생긴 오제 늪, 이들을 둘러싼 시부쓰산, 히우치가타케산, 아이즈코마가타케산, 다시로산, 다이사쿠산 등의 산들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이 특징입니다. 또한, 오제는 과거에 몇 번이나 개발 위기에 직면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도 귀중한 자연이 보존되어 일본의 '자연보호운동의 원점'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정	2007년 8월 30일
면적	37,222ha 후쿠시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니가타현

바다나 강, 물이 있는 풍경을 즐긴다



Sanjo-no-taki Falls



Ozenuma Swamp

산이나 식물을 즐긴다



Mt. Kasagatake



Mt. Aizukoma

문화 및 생활을 경험한다



Aizu-Numata road



Hinoemata Kabuki

야생 생물을 만난다



Japanese Stoat



Scarlet Dwarf

일정

산 정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오제의 산행에서 일본의 자연보호운동의 원점을 돌아본다

'일본의 자연보호운동의 원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오제. 에도 시대에는 군마현과 후쿠시마현을 연결하는 경로로서 교역이 활발했으며, 최근에는 자연보호 활동이 성과를 거두어 광대한 습원 경관과 거기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대한 습원 경관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 사전에 네이처 센터 등에서 오제에 관한 예비지식을 쌓은 후 웅대한 오제가하라 습지대의 경치를 바라보며 하이킹을 체험합니다. 고저 차이가 적고, '산 정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산행'은 오제의 매력이며, 광대한 습원을 자신의 발로 체험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긴 세월을 걸쳐 자연보호 활동부터 SDGs도 탐구합니다.

web site



Day 1

오제의 역사·자연·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배우고, 오제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전시를 견학

11:20 ● 조모코겐역
경



13:40 ● 오제 네이처 센터·오제푸라리칸 견학
}



16:00 ● 호텔(오제토쿠라 온천)

Day 2

일본 최대의 산지 습지대인 오제가하라의 웅대함을 느끼면서 트레킹

8:00 ● 버스(약 35분)

9:30 ● 네이처 투어
} 오제가하라 습지대의 웅대함과 자연보호 활동의 원점
14:30



15:50 ● 오제토쿠라 버스정류장



18:30 ● 조모코겐역

문의

Kanto Regional Environment Office

TEL 048-600-0516

MAIL REO-KANTO@env.go.jp